

“설 대목 팔려던 생선·횡감 다 타버렸소” 망연자실

르포-대형화재 여수 수산시장 가보니

“대구 서문시장 화재 뒤 소방점검 했다더니…”

상인들 “설 어떻게 쇠나” 잣터미 점포 보며 한숨만

“설 대목이 코앞인데… 다 타버렸단 말이요. 대목에 팔려고 말려둔 생선이란, 횡감이랑 전부 다.”

15일 새벽 일어난 화재로 순식간에 잣터미가 되어버린 여수시 교동 여수 수산시장 입구를 상인들은 종일 떠나지 못했다. 생계를 꾸려갈 터전이 밤새 일어난 화재로 날아가 버린 탓이다. 화마가 활취고 간 자리를 보면서 상인들은 한숨만 폭폭 내쉬었다.

설을 앞두고 일어난 화재라는 점에서 상인들의 상실감은 더 컸다. 120여명의 상인 대부분은 설 대목을 겨냥, 1년 중 가장 많은 물건을 점포에 비축해왔다. 하지만 밤사이 일어난 불로 설 대목은커녕 당장 좌판 한 칸 펼 수도 없는 현실을 마주한 상인들의 눈가에선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일찍부터 수산시장 입구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둘러쳐졌다. 그 너머로 폭 2m 가량의 통로가 보이고 옆에는 무릎 높이 좌판이, 뒤로는 수직관이 보였다. 전날처럼 상인들은 새벽밥을 먹고 좌판을 파려고 집을 나섰지만, 삶의 터전이던 수산시장은 전날과 달리 잣터미로 변한 뒤였다. 입구는 노란 선에 가로막혔다.

추운 겨울 몸을 따끈히 녹일 수 있도록 커피와 차를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내다 팔던 시장 입구 ‘××카페’는 간판이라도 멀쩡하다. 맞은편 ‘○○상회’는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 절반이 불에 타버렸다. 입구 안쪽으로 길이 50m는 족히 될 법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수산물 점포 117개는 전날 일

어난 화재로 하룻밤새 잣터미로 변했다. 수직관 가득 채워진 농어, 광어, 감성돔 등 싱싱한 횡감과 소라, 전복, 키조개 등 조개류는 산소 공급이 끊겨 죽어버렸다. 위판장에서 사들여 겨우내 내장을 손질하고 말려 둔 생선, 돌산 명물로 잘 알려진 갯감지도 모두 타버렸다는 것을 상인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알고 있었다.

곳곳에서 “도둑이라도 들었다면 가게는 멀쩡했을 것인데…” “대구에서 큰불난 뒤 소방점검을 했다더니만…”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시장 입구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60대 여성 상인 A씨는 “휴일도 휴일이지만, 설 대목에 찾아들 관광객과 손님들을 보고 물건을 떼어놔는데 하룻밤 새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말을 잊지 못했다. 다른 상인은 “시장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고서 새벽 3시에 급히 뛰쳐나왔다”면서 “명절을 코앞에 두고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설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며 털썩 주저앉았다.

여수 수산시장에서는 이날 새벽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점포 117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새벽 시간 경비를 서는 경비원 외에는 시장에 사람이 없어 불행 중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5억2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여수시와 상인들은 피해액을 50억원 수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여수=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15일 오전 여수시 교동 여수 수산시장 입구에서 시장 상인들이 불에 타버린 시장 안을 바라보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일요일이라서…” 핑계대던 경찰 뒤늦게 국과수와 감식 나서

화재감식 오락가락

“일요일이라 국과수 감식이 어렵습니다.”

15일 오전 잣터미로 변한 여수 수산시장 내부를 통제하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전 입장 불가’ 방침을 밝히자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들도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을 가리고 화재 원인을 분석해 혹시 모를 논란을 막는다는 경찰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일요일은 감식의뢰가 불가능하니 내일 오전 국과수가 다녀간 후 현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혔다고 했다. 오전에는 국과수에 앞서 감식에 나선 일부 경찰이 상인들이 만발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에 탄 시장 내부에서 버섯이 담배를 피우는 물의를 빚기도 했다.

상인들은 이날 새벽부터 화재 소식을 듣고 뛰쳐나와 불이 꺼지고 매캐한 연기가 사라지기만을 바랐다. ‘내 가게가 얼마나 불에 탔는지, 멀쩡한 상품은 얼마나 되는지, 우선 수리해야 할 곳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다가를 설 대목을 준비하려는

이유에서다. 일부 상인은 임시 수사본부가 꾸려진 수산시장 옆 남산파출소까지 찾아와 상가에 들어가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럴 때마다 경찰은 한결같은 대답을 내놔다. “안전에는 이장 없지만, 오늘일은 감식의뢰가 불가능하니 감식이 힘들고 월요일로 예정된 국과수의 정밀감식 전에는 내부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그러나 오후 들어 갑자기 ‘휴일 국과수 감식 불가’ 입장을 바꿨다. 상인들은 “문재인, 손학규 등 유력 대권주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화재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자 경찰이 부랴부랴 오후 5시께 국과수와 함께 정밀 감식에 들어간 것 같다”며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상식 경찰 15일 오전 1차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이 화재로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시장 상인들이 만발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버섯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 내부에서는 “국과수 내부 인력 부족 탓도 있고 통상 휴일에는 국과수 감식 의뢰를 꺼리는 분위기”라면서 “그러나 이번 화재의 경우 설 대목을 앞두고 생계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생각해, 경찰이 발 빠르게 국과수 감식을 요청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여수=김형호기자 khh@

전남도 1억 긴급지원… 전국 지자체도 동참

잇따르는 온정

15일 큰불이 난 여수 수산시장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이날 오전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화재 소식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뒤 전국 시·도에서 지원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우선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영업 재개를 위해 화재 피해 현장 정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1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국민안전처에 임시 영업장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1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해 중국 출장 중인 윤장현 광주시장, 위암 수술을 한 송하진 전북지사와의

연락했으며 휴일인데도 시·도지사들이 도움을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광주시는 가장 먼저 김종식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긴급지원반을 곧바로 구성해 여수에 보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귀국하는 대로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강원도, 경북도, 전북도 등도 지원 방안을 타진해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인연합회, 중소기업청도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순학규 전 민주당 대표이 화재현장을 찾는 등 대선 후보들의 방문도 잇따를 전망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화재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 정리를 서둘러 가능하면 설 대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50년 전통… 하루 3000명 찾는 필수 관광코스

여수 수산시장은

15일 화재가 난 여수시 교동의 여수 수산시장은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여수의 대표적인 수산물 전통 시장이다. 여수 수산시장은 지난 1968년 여수시 교동 680번지에서 개장했다. 모두 127개의 점포에 상

인 수는 263명으로, 매장 면적만 2308㎡에 이르는 대규모 시장이다.

여수 수산시장은 활어, 선어, 건어, 조개류 등 각종 수산물 이외 야채, 감지, 젓갈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전통시장으로 유명하다. 여수의 필수 관광 코스 중 하나로 주말이면 점포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하루 평균 관광객 2000~3000명이 찾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 ‘바이킹야시장’을 개장하여 매주 금, 토요일에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킹야시장은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세계 6개국의 대표 먹을거리와 청년 창작 먹을거리 판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수 시민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화재 피해액 축소 논란

100여 점포 불났는데

5억2000만원이라고?

“50억 넘을 것” 반발

15일 여수시 교동 여수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탔는데도 소방당국과 경찰은 피해액을 5억2000만원으로 추산, 상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불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시장 1층의 125개 점포 가운데 116개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층 점포 1개와 3층 창고 일부도 연기에 그을리는 피해를 본 것을 감안하면 점포 1곳당 45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어서 상인들 사이에 “피해 규모가 너무 축소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수산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화재로 5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점포마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불이 나 피해액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화재가 나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건물이 몇 년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소·반소·그을음 등 감가상각을 고려한 절대 피해액만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여수시 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5억2000만 원으로 피해액을 추산했는데 이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생각한 것”이라며 “여수시의 시설 투자도 많고 생활도 많아 실제로 피해액은 5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수=전은재기자 ej6621@

남편 불륜 잡으려고 차량 쫓다…



○…‘불륜 증거를 찾는다’며 남편의 승용차에서 현금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간 아내가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15일 광주 관산경찰에 따르면 주부인 A(33)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시 관산구 광주공항 주차장에서 남편 B(34)씨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 50만원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간 혐의.

○…경찰은 “제주도로 여행간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한 A씨가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차량을 뒤지다가 현금 등을 가져갔는데 남편이 이를 신고해 들쭉날쭉했다”며 “이들 부부는 이혼소송 중”이라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론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부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제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6(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2시30분
	박사	목회학과(D.Min.)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2017. 2. 8(수) 오후 3시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6(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